22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0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대회' 한국과 네덜란드의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네덜란드를 34-30으로 꺾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5전승… 또 다른 우생순 꿈꾼다

여자핸드볼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광주예선 마감

네덜란드에 34대 30 역전승… 조 1위 본선행

20세 이하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5전 전승으로 제17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예선전을 마감했다.

대표팀은 22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B조 5차전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12골을 몰아넣은 주장 유은희의 활약에 힘입어 34-30으로 승리를 거뒀다.

예선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한국은 네덜란드(3승1무1패)를 누르고 조 1위로 본선무대에 진출했다.

한국은 유럽의 강호 네덜란드를 맞아 전반 힘겨운 승부를 펼쳤다. 경기 시작과 함께 세 골을 먼저 내준 한국은 유은희의 골로 5-5 처음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양팀은 골을 주고받으며 역전과 동점의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13-16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이세미가 연속해서 7m 스로로 득점을 올리며 막판 공세에 나섰지만 한국은 16-17로 전반을 마감했다.

후반 들어 이은비의 득점포가 불을 뿜었다. 동점골과 역전골을 연속해서 넣은 이은비가 1점차로 앞선 상황에서 다시 한 골을 보태며 21-19를 만들었다.

골키퍼 박소리의 선방까지 이어지면서 네덜란드의 공세가 주춤해진 사이 조효비가 7m 스로를 성공시키며 3점차로 달아났다.

한국은 빠른 공격으로 후반 분위기를 주도했다. 가로채기에 이은 속공까지 전개되면서 네덜란드의 공·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기 종료 5분여를 앞두고 한국이 32-27까지 도망가자 네덜란드는 전원 공격에 나서는 배수의 진을 쳤다. 네덜란드는 골대까지 비우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기 종료 직전 김선화의 쐐기골까지 더한 한국은 34-30으로 승리를 장식했다.

성인국가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는 이은비와 유은희 두 콤비는 18골을 합작하며 팀의 5번째 승리를 견인했다.

광주에서의 예선일정을 마무리한 대표팀은 24일부터 고려대 화정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본선 경기를 치른다. 각 조 상위 3개 나라가 출전한 본선에서는 예선 A·B조 팀들이 1그룹, C·D조 팀들이 2그룹을 형성해 4강 진출팀을 가린다.

B조에서는 한국, 네덜란드, 크로아티아가 본선에 진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툭하면 연패…더위 먹은 호랑이들

반갑다! 올스타브레이크

26일까지 휴식… 재충전 나서

KIA 타이거즈가 2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전반기 대장정을 끝냈다.

27일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프로야구계에 '올스타브레이크'가 찾아왔다. 호랑이들은 천금같은 휴식기를 어떻게 보낼까?

23~26일까지 경기가 없지만 갈길 바쁜 호랑이들의 훈련은 쉬지 않는다. 23일 하루 자유시간을 얻은 선수들은 24·25일 훈련을 위해 소집된다. 26일은 이동일. 롯데와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부산으로의 이동에 앞서 선수들의 특타가 진행될 예정이다.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에 초대받은 선수들은 더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한다. 주장 김상훈을 비롯해 올스타에 선정된 7명의 선수들은 올스타전을 위해 대구구장을 찾아야 한다.

흥겨운 잔치를 위해 가는 길이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다. '디펜딩 챔피언'에서 6위까지 추락한 팀의 상황 때문이다.

후배들을 이끌고 올스타전을 찾는 김상훈은 "올스타전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지만 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감독추천을 받아 처음으로 올스타 무대게 나가게 된 손영민도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아 올스타전 참가하는 게 부끄럽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뒤늦게 올스타 무대에 합류하게 된 내야수 김선빈의 심경도 복잡하다. 김선빈은 22일 경기에 앞서 LG 오지환과 함께 올스타전 참가선수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웨스턴리그 3루수 부문 베스트 10에 이름을 올렸던 황재균이 이스턴리그의 롯데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웨스턴리그에서 새로 두 명의 선수를 선발했기 때문이다.

김선빈은 "올스타 무대에 참가하는 영광을 얻어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태균 日 올스타 무대 홈런포 쏜다

'한국산 거포' 김태균(28·지바 롯데)이 일본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5년 만에 '한국인 홈런포' 가동에 나선다.

올해 일본프로야구 올스타 투표에서 퍼시픽리그 최다득표(36만358표)를 달성한 김태균은 23일과 24일 각각 후쿠오카와 니가타에서 벌어지는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인 선수가 팬 투표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 것은 지난해 센트럴리그 마무리 투수로 나선 임창용(34·야쿠르트)에 이어 두 번째이며, 타자로서는 처음이다.

올 시즌 89경기에 출전한 김태균은 타율은 0.280으로 기대보다 조금 낮았으나 홈런 18개로 퍼시픽리그 3위에 올랐고 타점은 73개를 수확해 리그 선두를 달렸다. 7월 들어 약간 주춤해지긴 했지만 5월과 6월에는 각각 9개와 6개의 홈런포를 터뜨려 '거포 본능'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미 인터리그에서 24타점으로 1위에 오르며 센트럴리그 투수들을 공략했던 경험이 있는데다 부담 없이 나서는 경기인 만큼 김태균이 올스타전에서도 '축포'를 쏠 가능성은 충분하다.

김태균이 홈런을 터뜨린다면 지난 2005년 이승엽 이후 5년 만에 다시 한국인 타자가 올스타전에서 홈런포를 쏘아올리게 된다. 퍼시픽리그가 승리한다면 한국인 첫 최우수 선수도 노려볼 만하다. /연합뉴스

"광주 팬들의 성원 우승동력 될 것"

예선 전승 이끈 백상서 감독·유은희 선수 정상 다짐

"광주의 열기를 등에 업고 우승에 도전하러 갑니다."

제 17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예선 경기를 위해 광주를 찾았던 한국 대표팀이 5전 전승의 기록을 안고 22일 본선무대인 서울로 떠났다.

지난 12일 광주에 캠프를 차렸던 대표팀은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백상서 감독은 "처음 광주에 왔을 때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선수들이 관중들이 많이 와서 긴장할 정도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며 "응원만큼이나 광주의 음식이 너무 좋아서 선수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냈다. 앞으로도 핸드볼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상투혼으로 팀을 이끈 주장 유은희도 "한국에서의 경기라 대회전 많은 부담을 가졌지만 많은 관중을 통해 새로운 기분을 느꼈다. 해외대회에서는 승리를 하고도 마음껏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홈 관중의 응원속에 기분 좋은 승리를 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예선 5경기를 통해 몸을 푼 대표팀은 4강 고지를 넘어 우승을 향해 가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백상서 감독(왼쪽)과 유은희 선수.

백 감독은 "5승을 하기는 했지만 예상외의 고전을 했다. 상대팀들의 비디오를 보며 분석을 많이 했지만 그동안 실력들이 더 좋아진 것 같다. 네덜란드와의 마지막 경기 전반전때도 수비가 안되면서 속공도 안되는 등 공·수에서 동시에 부진했다"며 "예선에서 주전들의 체력분배를 하지 못하게 아쉽기는 하지만 어느 팀이든 공략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부분을 가다듬어서 무조건 4강에 진출해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빅초이' 최희섭 미스 코리아출신과 12월 결혼

KIA타이거즈 내야수 최희섭이 올 겨울 새 신랑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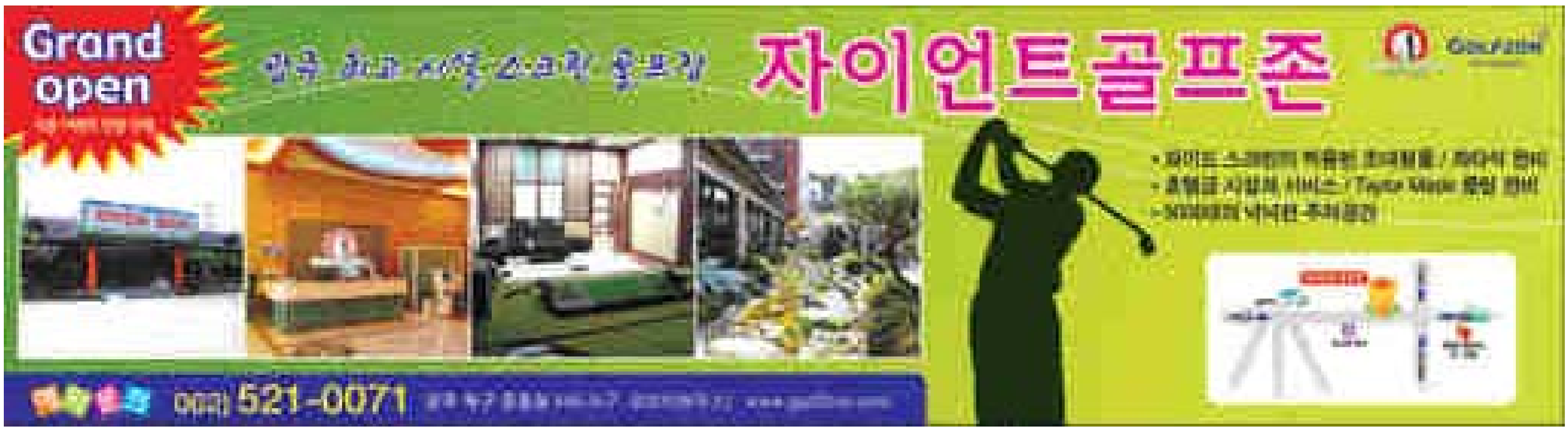
'빅초이' 최희섭이 오는 12월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화촉을 밝힌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신부는 2006년 미스코리아 미 출신인 김유미(27)씨로 이들은 결혼 후 광주에서 신접살림을 차릴 계획이다. 2007년 지인의 소개로 만남을 가져 온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결혼을 전제로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

최희섭은 "첫 만남에서 호감을 느꼈다. 만나면 만날수록 인생의 반려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선수인 나를 이해해주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야구가 힘든 시절에 다시 배트를 잡을 수 있도록 정신적인 도움과 내조를 해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결혼 배경을 설명했다.

최희섭은 최근 연예인과의 결혼설이 불거지면서 결혼발표를 서둘렀다.

〈김유미 씨〉 〈최희섭 선수〉

최근 한 언론사의 오보로 유명가수와의 결혼설이 나오면서 심적인 부담을 느꼈던 최희섭은 "팀 성적이 좋지 못하고, 외부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결혼을 발표해 팬과 구단에 미안하다"며 "하지만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